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49째주 (12월 5일)

정교회 주보



성 다니엘 주상(柱上)수사

루가 제 10주일

성 사바스 수사

제 7조, 조과복음 2

(조과에서 성탄 카타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7조 부활 찬양송 / 82, A 217

•주일 입당송 / 14, A 42

•수도자 찬양송 / 85, B 267

•성당 찬양송

•성탄 대림절 시기송 / 208, B 239

•사도경 : 갈라디아 5:22~6:2 / 봉독서 344



교회의 성인들



성 다니엘 주상(柱上)수사

“모든 성인들은 존경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모든 성인들을 모두가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존경할만한 가치는 있지만 똑같이 따라 할 수 없는 성인들이 주상(柱上-기둥 위)성인들입니다. 많은 수도사들이 여름에는 더위에, 겨울에는 추위에 노출된 기둥 위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 중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12월 11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다니엘 주상수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분과 똑같이 할 수 없지만, 그분의 인내를 존경하고, 자신을 넘어서려는 고행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성 다니엘 주상수사는 AD 410년에 태어났습니다. 성인의 부모는 경건한 엘리야와 마르타였습니다. 성인의 어머니는 불임상태였는데 놀랍게도 다니엘 성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부모는 다니엘을 하느님을 위해 일하도록 바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부모는 다니엘을 매우 정성스럽게 키웠고, 그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아직 어린 나이에 이웃 도시들을 다니면서 성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가

서 경건한 수도생활, 신학 연구, 겸손한 생활에 전념하였습니다. 한 번은 수도원장과 여행을 가다가 시메온 주상성인을 만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장이 안식하자, 다시 시메온 주상성인을 찾아가 어디로 가야 할지 조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메온 주상성인은 다니엘에게 콘스탄티노폴로 가라고 조언했고, 다니엘은 그 말씀을 따라 콘스탄티노폴로 가서 정착했습니다. 얼마 뒤에 다니엘은 시메온 성인이 자신을 부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해석한 후,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정착했습니다. 기둥을 설치한 목적은 욕구들을 제거하고 더 많은 덕을 쌓기 위한 투쟁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성인은 이러한 투쟁으로 선견지명의 은총을 받았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칼케돈 공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성인은 80세에 안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올바른 일을 많이”(필립비1:11)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덕의 열매가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안식일인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마침 이곳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병마에 사로잡혀 허리를 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온 여인도 와 있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시고,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자 즉시 그녀는 똑바로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열여덟 해라는 기간 동안 속죄하고 인고의 시간을 보낸 여인의 모든 것을 보시는 예수님께서서는 변치 않는 굳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고쳐주셨고, 주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은 길고 길었던 고통의 굴레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다.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굽었던 허리가 펴져 똑바로 서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건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을 주기에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인정할 수 없었던 회당장은 군중들을 동요시키기 위해 군중에게 외쳤다. “일하는 날이 옛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옛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라며

예수님께 적대감을 일으키도록 선동하였다.

회당장과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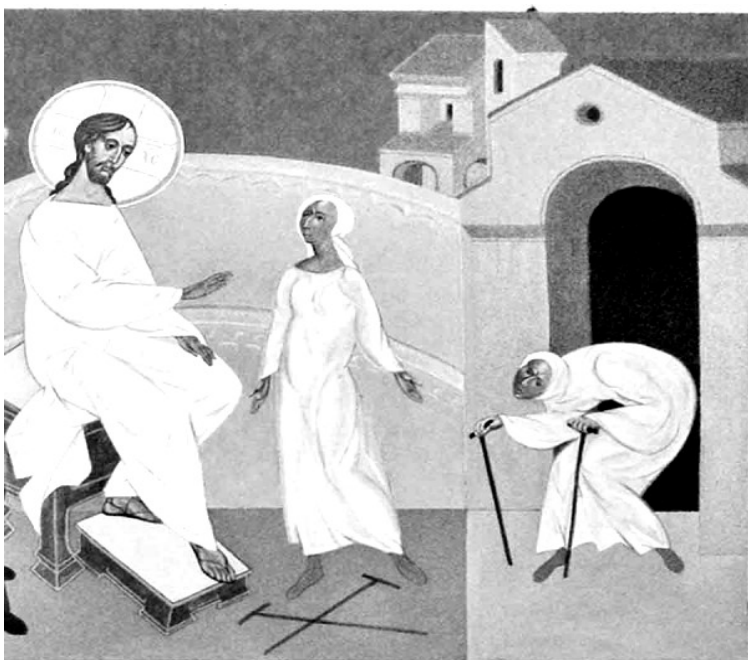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이들에게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열여덟 해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꾸짖으신다.

주님으로부터 위선자라고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은 이들이 율법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는 한편 계명을 제정하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복음사도 요한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다. 회당장도 사랑이 있었으면 병마에서 풀려난 여인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느님을 찬양했을 것이다. 사랑은 많은 죄를 사하여 준다. 하느님의 말씀인 로고스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을 나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또는 친지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해하고 사랑해야한다는 의미이다.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해변에서 이루어진 고백성사(3)

(조지 흐리스토틀로스 신부)

그는 고백을 끝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덮어주듯 저는 영대로 그의 머리를 덮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동안 그가 내 신발에 손을 댄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발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겸손한 행위가 먼저 나를 가르치고, 이어서 그에게 하늘의 보상을 주도록 말입니다.

기도를 마치면서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회개의 강물은 바다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신부님, 두 분은 저의 온 생애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50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빛을 보았고, 이제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다시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하늘 높이 날아올랐으며, 그의 얼굴은 어둠 속이지만 빛이 났습니다.

물론 그는 이런 진솔하고 애절한 회개로써 아주 큰 선물, 곧 하느님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성찬예배에서 성체와 성혈을 받도록 축복해주었습니다. 그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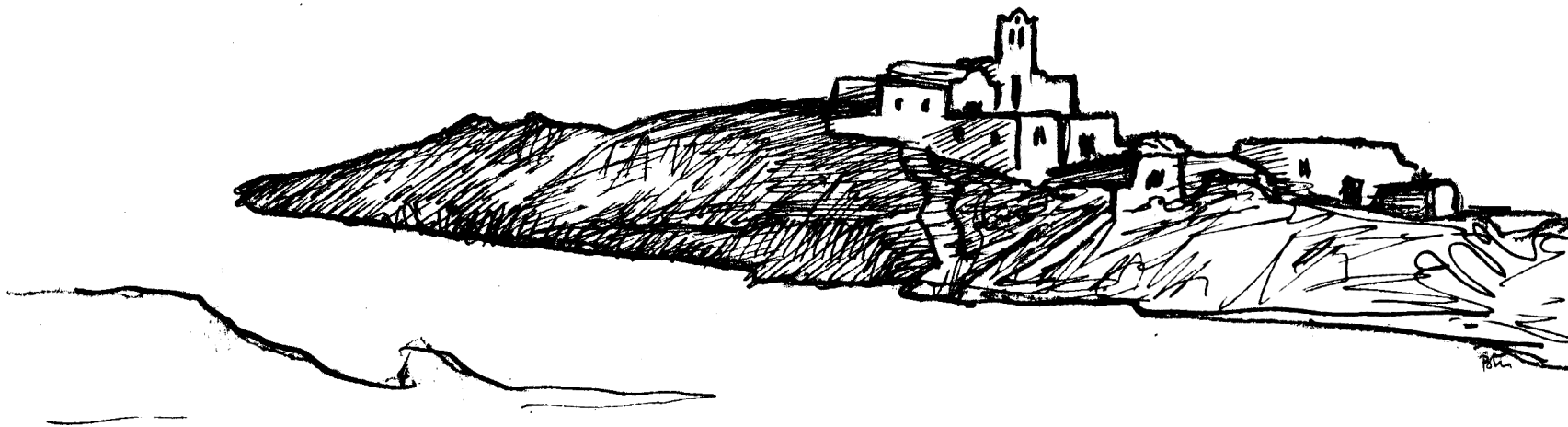


아마도 그가 자신의 창조주를 맞보는 첫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회개한 강도와 아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디오피아인 모세 성인과도 같은...

그는 처음 왔을 때처럼, 다시 어둠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주님의 은총으로 그는 정화되었으며, 구원의 희망을 갖고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직자들 평신도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무명의 남자가 했던 것과 같은 회개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다니엘 대신부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12월 6일(월) 축일을 맞이하는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모든 신자들과 성인의 이름을 받은 분들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성인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7일(화) 축일을 맞이하는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와 11일(토) 축일을 맞이하시는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시어, 주님의 양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달력

2022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2022년 달력의 주제는 '성모님'으로 매달 소개되는 내용을 통해 성모님을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탁상용은 5,000원, 벽걸이용은 7,000원에 판매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성 니콜라스 축일

오는 12월 6일(월) 성 니콜라스 축일 예배 안내드립니다.

12월 5일(일) 오후 6시 - 대만과, 아르토클라시아, 행렬

한국정교회 120주년 기념 온라인 전시회 개막식

12월 6일(월) 오전 9시 -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축일 행사

우리 수호성인이신 니콜라스 성인 축일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성당 대청소와 성탄절 장식

오늘 12월 5일 주일 성찬예배 후에 성 니콜라스 축일을 준비하는 성당 대청소와 성탄절 장식을 할 예정입니다. 신자분들께서는 모두 함께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세주 변모 수도원

■ 수도원 블로그 운영

구세주 변모 수도원의 블로그(orthodoxmonasterykorea.org)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주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하셔서 영적으로 유익한 양식을 얻도록 합시다.

주간예식



12월 6일(월) 성 니콜라스 미라 대주교
12월 7일(화) 성 암브로시오스 밀라노 주교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

